

# ‘오월에서 통일로’ 통일만보 걷는다

5월 정신 계승·통일 염원 걷기운동...22일 광주 남구 푸른길 공원에서 80년생 공무원·시민 등 참여...한반도 모형 뜬 길이 3m 꽃길 조성도

5월 정신 계승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걷기 운동이 전개된다. 5·18민주화운동이 발발한 해인 1980년에 태어난 광주 남구청 직원들과 광주시민들이 푸른길 공원에 모여 '만보 걷기'에 나선다. 광주시 남구는 17일 "80년 5월 당시 광주시민들



마르지 않는 눈물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둔 17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에 참석한 유족이 가족 열사 묘소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은 입을 위한 행진곡 등 여러 항쟁 가요 외에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자주 불렀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역사적 정신과 가치를 담아 오는 22일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남구 오월 통일만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구 오월 통일만보' 행사의 슬로건은 '오월에서 통일로, 걸으면서 통일한다'이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통일만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주지역회의, 광주대 민주동우회 공동 주관으로 진행되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여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통일만보 걷기 운동은 4년 전부터 광주·전남 지역사회에 통일 공감대 형성 및 확산을 위해 광주 YMCA를 비롯해 광주흥사단, 전남대 민주동우회, 통일의병 등 4개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해 온 통일 운동이다. 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하루 1만보씩 걷고 인증 글을 앱 등에 공유하면 누구나 통일 운동을 하는 독특한 방식의 시민운동이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8시 45분까지 백운광장 앞 세월호 추모 조형물 광장에 집결한 뒤, 발열 체크 등을 한 뒤 본격적인 행진에 나설 예정이다. 걷기 코스는 백운광장에서 진월동 동성고 앞까지 왕복 5.6km이다. 남구청 직원들은 가족 단위로 참가해 세대가 아우르는 행사의 의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오월 통일만보 행사 참가자들은 한반도 모형을 본뜬 길이 3m 가량의 꽃길도 만들 예정이다. 한반도 모형 꽃길에는 꽃말로 '우정'을 뜻하는 메리골드 1종으로 채워지며, 4·27 판문점 선언의 실현 의지를 담아 총 427개의 메리골드 꽃이 장식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80년 5월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하나가 돼 한반도의 통일을 기원하자는 마음에서 통일만보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시민참여의 통일운동 전개는 80년 5월 정신의 현대적 계승이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꽃길을 놓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지방채 556억 10년 조기 상환 광주교육청 이자 56억 아낀다

광주교육청이 지방교육채(지방채) 556억원을 10년 앞당겨 올해 조기 상환하기로 했다.

17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2015~2016년 학교 신·증설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556억원을 올해 안에 상환한다. 시 교육청은 이와 관련한 예산을 지난 14일 시의회를 통과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다.

시 교육청은 애초 지방채를 2031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이었지만, '재무 제로(zero)' 방침에 따라 상환 시기를 앞당겼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10년간 이자 56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제1차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 교육청 예산은 본예산 2조2341억원에서 1851억원(8.3%) 늘어난 2조4192억원이 됐다.

시 교육청은 이번 추경예산에 학교의 일상 회복 및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뒀다.

주요 지출 예산 사업은 ▲학교 안전망 구축 91억원 ▲미래 교육 기반 조성 60억원 ▲교육 복지 강화 111억원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724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542억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조성 206억원 등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공공서비스 예약 한눈에 북구, 누리집에 종합 안내

광주시 북구는 공공서비스 중 예약이 필요한 사이트를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북구청 누리집에 예약신청 종합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서비스는 직접 운영하는 예약신청 사이트와 민간위탁시설 등 수요가 많은 사이트 정보를 담아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안내사항으로는 교육·체육·문화·공연·시설대관·여권신청 등 교육 프로그램부터 체육시설, 드론비행연습장 예약까지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예약신청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북구청 대표 누리집 화면에 있는 소통광장 또는 예약신청 바로가기 메뉴 선택 후 해당 누리집으로 이동해 필요한 예약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북구는 정기적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구정 현황을 대표 누리집에 카드뉴스로 안내하고 있으며, 최근 주민이 많이 찾는 메뉴 위주로 디자인을 개선하는 등 사용자 중심의 누리집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어르신 자서전 직접 써보세요

광주 서구, 65세 이상 참가자 모집...작성 프로그램 마련

광주 서구가 우리 이웃의 어르신들이 살아오면서 체득한 지식과 경험을 사회가 공유하고, 책으로 인생을 정리하는 새로운 문화활동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2021 서구 어르신 자서전 쓰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참가자격은 서구에서 거주하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자서전 제작 경험이 없고 자신의 인생을 책으로 펴내고 싶은 분으로, 자서전 쓰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다.

모집인원은 15명 이내로 오는 31일까지 모집하며,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서구청 도서

관과(상록도서관 1층)에 직접 방문·접수하면 된다.

자서전은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연대기별 회상, 살아온 과정 중 특정 시점들의 경험, 가족사, 향토 및 사회적인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한 회고록 등 인생 일대기를 작성하게 된다.

참가하신 어르신들에게는 나의 역사 정리하기, 자서전 소재 및 주제 찾기, 자서전 쓰는 방법, 자서전 쓰기 실습 및 초고 쓰기, 자서전 집필 방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서전을 어렵지 않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

## “국민의힘, 5·18 이용 사기 행각 중단하라”

청년 단체 광주대진연, 시당 점거 농성...10여 명 입건

진보성향 청년 단체인 광주대학생진보연합(이하 광주대진연)이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광주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광주대진연 소속 학생 12명이 광주시 서구 치평동 국민의힘 광주시당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한다던 국민의힘이 5·18 역사왜곡처벌법에 전원 반대하고 기권했던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5·18을 본인들의 정치 이익에 이용할 뿐인 사기 행각을 중단하라”며 “그동안의 만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온 국민에게

사과하고 정당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러한 주장을 토대로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과 면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광주 대진연 학생들이 1시간 30분 간 점거를 이어가자 경찰에 시설보호를 요청했고, 경찰 인원 100여명이 동원돼 이들을 강제로 끌어냈다.

경찰은 점거 농성을 한 2명 가운데 1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 힘이 되는 든든한 금융파트너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창립  
40th

최고 70%  
대출한도  
아파트 분양자금

최고 80%  
대출한도  
부동산 담보대출  
(최고 50억원 한도)

최고 2,000만원  
(근로자 최고 1,500만원)  
햇살론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MG 대광새마을금고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각종 공제(암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